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1994. 10

崔 春 欽(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탈냉전이후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綜合國力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1990년대 국가경제 건설의 최대 목표로 삼고 개혁·개방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2000년대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중국에 의하여 주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으로서 한·중수교 2주년을 맞은 한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중국은 한국과 경협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한편, 북한과의 유대관계 지속을 통한 북한 社會主義體制 유지를 위해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안보협력을 모색하는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한국은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되어 온 對中 經協 관계를 質的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경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안정유지 및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다변적인 對中 안보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對中 經協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중 경협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며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유리한 統一環境을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본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韓·中 양국의 경제 관계를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對中 經協 활성화와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대중 경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1990年代 韓國의 對中國 經濟協力 戰略

탈냉전이후 한국의 對中 경험전략은 안보 및 경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유리한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안보적 차원과 더불어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중 수교이후 안보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정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해 첫째, 중국의 대북한 정치, 안보관계 강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둘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정유지를 모색하며, 셋째,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자세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대중 안보협력 전략목표의 성공여부는 대중 경험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첫째,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국 내륙지방

移轉과 중화학공업의 沿岸開放都市 및 東北3省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둘째, 고급 전자, 전기산업에의 투자확대를 통한 중국市場의 內需化, 동북3성의 천연자원 확보에 대한 투자 확대,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합작을 통한 생산품의 고급화와 신상품의 개발 등을 모색하며, 셋째,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북한 접경지역에의 대거 진출과 두만강개발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유도를 모색하고 있다.

2. 1990年代 中國의 經濟發展 政策과 東北亞 經濟 協力 戰略

중국은 1990년대 경제발전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발전, 全方位 대외 개방, 교역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中國은 渤海灣地域과 東北地域(東北3省인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과 內蒙古 포함)에 대한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상호보완성 위주의 경협 확대와 이들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對한반도 경협전략은 한국과 북한을 구별해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보완성 제고에 역점을 둔 대중 투자확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난 해소 및 대외개방의 적극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본의 對中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3. 韓·中 經協 現況과 問題點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간 교역, 투자는 크게 증가되어 한·중 교역은 1993년 쌍방의 직접 무역액이 90억달러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 무역상대국이 되고,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반적으로 투자 건수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투자액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993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투자환경과 輿件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한국 비제조업 부문의 對中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부동산, 서비스 관련 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電子(고화질TV), 자동차(부품에서 완성차로 단계적 이행), 차세대 전자교환기, 항공기 합작생산(2000년까지 중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건설(사회간접자본), 광물자원, 통신분야의 합작 내지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電子部門 투자 전망이 가장 밝으며, 금융, 보험, 관광산업 등 서비스분야 진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완성차 합작생산과 中型항공기 합작사업은 1990년대 후반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투자성격이 동북3성과 노동집약형 부문에 투자가 편향되는 등 量的 膨脹에 치중되어 있어 다변적이고 다양한 투자구조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質的 向上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4. 韓·中 經協의 推進方向

한·중 經協의 주요 추진방향은 중국과의 경협관계를 이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첫째, 대중 경협을 3大特化 戰略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략을 서로 연관 시키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山東省을 중심으로한 수출주도형 경협, 중국 연안지역의 市場內需化를 겨냥한 경협, 中型항공기 사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이전을 중심으로한 경협을 연계하는 가운데 흑룡강성, 길림성과 기타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천연자원개발 투자 경협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대기업의 대중국 진출이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의 업종별 특화와 여러 분야의 중국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교역, 투자 등과 관련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省, 市, 縣 등 지방정부와 양국의 企業과 企業간 교역, 투자 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중경협의 확대·발전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북 진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한·중 합작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북한간 무역중 에너지(원유)와 곡물류의 대북한 수출의 70%정도를 점하고 있는 동북3성과의 경협을 적극 추

진하여 한국의 대북한 進出 立地를 강화하고,

둘째, 중·북한의 변경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延邊自治州를 기점으로 비누, 치약, 운동화 등 소비재품목 생산을 위한 한·중 변경무역합작회사 설치를 확대하며,

셋째, 도문-청진간 철도 사업과 같은 한국의 대북진출 수송망 구축을 위한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진출 수송력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중국이 한국과의 합작투자를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5. 結 論

한국은 대중경협 확대로 중국과의 정치·안보협력 관계가 점진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한 정치·안보관계 강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중경협이 양적인 팽창에서 점진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즉 한국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투명성 확보를 대북 경협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대북 진출은 물론, 중국과 합작한 대북 진출 및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한반도통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대중 경험의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경험 확대만으로 한·중간 안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인 바,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국의 대중 안보협력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중 양국의 경험 확대가 예상되고 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深化됨에 따라 정치 및 안보관계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안보협력관계의 진전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협력관계의 폭과 깊이를 가일층 심화·확대시키고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할 것이다.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1990年代 韓國의 對中 經協 戰略.....	3
1. 有利한 統一 環境 造成.....	3
2. 相互補完性 極大化를 통한 產業構造의 高度化	4
第Ⅲ章 1990年代 中國의 經濟發展과 東北亞 經協 戰略 ...	6
1. 1990年代 中國의 經濟發展 政策.....	6
2. 中國의 東北亞 經協 戰略	14
第Ⅳ章 韓·中 經協 現況과 問題點	19
1. 兩者關係	19
가. 貿易部門	19
나. 投資部門	23
2. 多者關係	37
3. 問題點	40
第Ⅴ章 韓·中 經協의 推進方向	45
第Ⅵ章 結 論.....	51

第 I 章 序 論

중국은 地政學的으로나 地經學的으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冷戰時代 중국은 북한과 정치,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소원한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대회'를 前後로 중국은 자국의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한국과 경제 등 비정치적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 修交로 양국의 정치관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경제관계는 교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發展, 伸張되고 있다.

脫冷戰이후 심화되고 있는 각국들의 경제우선 정책,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 북한 핵개발 의혹의 돌출 등 한반도의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産業構造 調整과 유리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중간 경제관계를 분석·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제 2 장에서는 한국의 對中 經協戰略을 고찰하였다. 제 3 장에서는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과 동북아 경협전략이 분석되었으며, 제 4 장에서는 한국의 대중 경제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다자간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검토하고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들을 기초로 하여 제 5 장 결론에서는 향후 대중 경험 활성화 방안과 한·중 경험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 등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第Ⅱ章 1990年代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戰略

탈냉전이후 한국의 對中 경협 전략은 안보 및 경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 과 경제적 상호 보완성 극대화를 통한 한국 産業構造의 고도화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1. 有利한 統一 環境 造成

과거 냉전시기 한·중관계는 북·중간 유대관계로 인하여 적대관계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한·중간에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비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접촉이 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이전에 實利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대중국 협력관계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를 전후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민간레벨의 관계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북방외교를 국가의 주요 외교전략으로 삼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중 정책은 1990년 9월 구소련과의 修交를 계기로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중국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과 정치관계의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바,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國交

수립에 이르게 되었다.

한·중 수교이후 한국의 對中 정치 및 안보협력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중국과의 정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해 첫째, 중국의 대북한 정치·안보관계 강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둘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여 한반도 안정유지를 모색하며, 셋째,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대중 안보협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한·중 간 경제적 의존도가 얼마나 심화될 수 있을것인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相互補完性 極大化를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한국은 1980년대 노동집약형 산업과 수출촉진정책을 기반으로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으나, 임금, 토지 가격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외경쟁력의 약화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한국은 경제발전 목표를 2000년대 선진경제체제의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국제화, 개방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대외개방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약화 업종의 高附加價値産業으로의 재편과 새로운 해외시장 및 석유, 석탄 등 천연資源導入線의 확대,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기초과학 및 첨단 산업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한국의 경제발전 목표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중 경협 전략은 중국산업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경쟁 관계를 최소화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는 최근에 개방으로 임금, 토지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륙지방으로 移轉을 추진하고, 보다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은 공업기반이 발전한 沿岸開放都市 및 東北3省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지리적으로 가깝고 내수시장이 큰 중국연안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전기, 전자업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부존자원이 풍부한 동북3성에 석탄, 석유, 농수산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개방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합작 등을 통해 기존 생산품의 고급화와 신상품의 개발(중형 항공기생산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독자적인 대북 경제진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중·북한 接境地域 개발사업 특히 다자 협력사업인 두만강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중·북한 무역규모가 한·중 무역규모의 10% 정도인 점을 활용, 중국경제발전에서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및 市場의 중요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대한국 정치,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

第Ⅲ章 1990年代 中國의 經濟發展과 東北亞 經協 戰略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은 중국의 경제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해야 할 것인 바,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90年代 中國의 經濟發展 政策

1990년대 初 특히 1992년 10월부터 중국은 「社會主義 市場 經濟體制」 확립 기치하에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더욱 심화하기로 결정하고 수출주도형의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 중국의 구체적인 경제발전 정책은 성장위주의 발전, 全方位 대외개방과 交易의 多變化를 통한 중국 주도의 개방된 경제권 형성 등이다.

가. 成長爲主의 經濟發展 推進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추진하였던 安定重視 경제정책을 구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成長重視 경제정책으로 급속히 전환하여 1992년에는 12.8% 고도성장 기록을 바탕으로 8次 5個年計劃(8·5計劃)을 수립(표 1-1)하고 있어, 향후 중

1)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임.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毛綱, 錢芬琴 編, 「社會主義市場經濟學」(上海: 中國物價出版社, 1994. 3), pp. 31~35, 62~85.

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이 8.5% 水準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世界銀行(World Bank)과 일본의 노무라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의 중국 국내총생산(GNP) 예상증가율은 세계경제의 GNP 예상 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아시아 他地域의 평균 5.6%, 북미지역의 2.4%, 서유럽의 1.9%에 비해 높은 성장목표이다. 2000년의 중국의 GNP 규모가 미·일에 버금가는 경제규모(6조 5천억불)

〈표 1-1〉 중국의 8차 5개년계획(1991~1995)

분 야	주 요 계 획
· 수리·관개 등 농업기반 정비	南水北調(長江의 물을 黄河에 끌어 들임), 引黄入晋(黄河의 물을 山西省에 끌어 들임)
· 조림사업	6백70만ha의 식수 조림
· 석탄개발	대형 노천탄광 개발, 광구 확장 신설
· 전력개발	수력, 화력, 제2원자력 발전
· 석유 천연가스 개발	8개 중점프로젝트에 대해 자원탐사, 개발
· 철도건설	주요 간선의 디젤화 전기화
· 도로건설	고속도로 건설
· 항만건설	전용부두 건설, 접안능력 증강
· 공항건설	각 공항의 개축 및 확장 공사
· 통신건설	전화보급, 대용량 디지털통신 간선망, 통신위성 지상지국
· 원재료공업	1백개의 대중형 프로젝트진행(제철, 알루미늄, 화학플랜트)
· 전자·기계·경공업·방직 등 각 분야에서 일련의 국가중점계획 진행	

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치는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誘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표 1-2).²⁾

〈표 1-2〉 中國 經濟展望

	1990	1995	2000
· GNP성장율(%)	5.6	8.5	8.5
· 소비증가율(%)	2.2	10.4	9.7
· 투자 GDP(%)	36.6	34.9	30.6
· 인플레이율(%)	5.1	6.0	6.0
· 경상수지(백만불)	11,935	△5,056	△9,355
· 수입증가율(%)	△12.8	9.7	9.4
· 수출증가율(%)	12.6	8.1	9.8
· 채무(백만불)	52,554	77,576	99,713
· D. S. R(채무상환율)	10.3	8.5	7.3

出處: 경제기획원, 「韓·中 經濟協力 便覽」, 1994년 3월, p. 15.

2) 경제기획원, 「韓·中 經濟協力 便覽」, 1994년 3월, p. 15에서 재인용. IMF는 구매력지수(purchasing-power parity)측정 방법을 이용, 중국의 (홍콩과 대만을 포함) 1992년도 GNP는 과거 추정된 5천억달러의 4배인 약 2조달러 규모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이미 세계 제3대 경제국가임을 밝힌 바 있다. Steve Greenhouse, "New Study Puts China Economy at 3d Bigge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 5. 19; 성장속도만으로 추정할 경우, 중국 경제가 10년뒤인 2000년대 초에는 미국경제와 거의 맞먹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도 있다.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미국의 2배 속도로 성장하고 8년마다 2배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미국경제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25~3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윌리엄 리스-모그, "아시아경제의 浮上," 「世界日報」, 1994. 8. 2, 재인용.

또한 중국은 1980년대 말부터 成長爲主의 경제발전을 위해 計劃경제기능과 市場기능의 결합을 시도하여 왔으나, 1993년 11월 중공 제14期 3中全會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관한 黨의 決定으로 「市場經濟」의 확립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하였다.³⁾

이로써 중국은 1990년대의 경제발전을 2단계로 구분, 제1단계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제2 단계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로 설정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중국의 제1단계 목표는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재정, 금융부문 등에 대해 巨視經濟체제 확립 입장에서 골격을 구성하고 1990년 초에 도입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에 內在하고 있는 불안정 요인을 정리함으로써 市場이 갖는 자생적인 조절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중국의 제2 단계 목표는 금세기 말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初步的 건설을 확립하는 데 있다.⁴⁾

뿐만 아니라, 중국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확립과 巨視調整體제의 개혁에 최대 중점을 두고 국영기업의 활성화, 노동계약제 실시와 가격통제의 완화 등의 정책

3) 「中共中央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있어서의 몇가지 問題에 관한 決定」은 1993년 11월 14일 中國共產黨 제14期 中央委員會 제3차 全體會議에서 통과된 사항임.

4) “中國經濟體制改革：計劃經濟與市場調節相結合,” 「宏觀經濟與決策」來自國家計委經濟研究中心的報告, 1992(上海人民出版社, 1993), pp. 1~2.

을 추진하고 있다.⁵⁾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중국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國營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근로자들에 대한 종신고용제를 축소하는 노력을 확대하여 현재 많은 기업들의 노동자의 轉職이나 解職이 허용되는 노동계약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째, 중국은 消費者 商品중 90% 정도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가격통제를 해제하고 특히 製造商品에 대한 중앙통제식 수량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1979년 중국산업 총생산량의 95%에 달하였던 규제가 현재는 20%이하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急進成長 정책에 따른 경제 과열팽창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정자본 투자, 주식, 채권, 외국인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景氣鎮靜策 도입은 단기적인 것이다. 1994년도 상반기 중국의 산업생산율이 전년 동기대비 15.8%의 증가와 전체무역액의 25.4%의 증가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⁶⁾

5) 李在瀋 세계일보 北京특파원의 中國의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의 洪虎 부주임과의 인터뷰: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는 중국의 대외개방을 위한 정책입안과 제도개선을 전담하는 개혁의 중추부서임. 「세계일보」, 1994. 2. 3.

6) 「매일경제신문」, 1993. 1. 31; 1994년 중국의 경기진정책 실시 결과 상반기 무역적자는 총 8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5억 4천만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1993년도 무역적자는 122억달러임). 전체무역액은 1994년 상반기 기준 976억달러로 같은 기간에 비해 25.4%가 늘어 났으며, 총 수입액은 492억 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1.1%가 증가한 반면, 총 수출액은 483억 9천만달러로 30.2%의 신장을 가져왔다. 북경 AP, 신화통신사, 「주요국제정세일보」, 94-156, 한국, 외무부 정보상황실, 1994. 7. 12, p. 11, 재인용.

나. 全方位 對外開放 推進

중국은 1992년 이후부터 중국各省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內陸地方의 主要 都市를 개발지구화하고 그 동안 외국투자가 억제되었던 여러 業種을 대폭적으로 개방하는 전방위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南部 海岸지역의 특별경제지구 설립과 1984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의 東部 海岸전역에 걸친 개발지구의 대외 투자 유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데 있다. 중국은 특히 1992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福建省을 1990년대 初의 廣東省의 수준으로, 上海지역의 연평균 성장을 10%를 유지하는 한편, 山東省의 1992년 생산능력 수준을 3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⁷⁾

또한 중국은 전방위 대외개방의 실현을 위해 무역체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低廉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수출의 경쟁력을 가속화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중국은 先進資本 및 技術導入 심화와 늘어나는 자국의 對外負債 감소를 위해 對外開放의 폭을 더욱 擴大하여 오랫동안 전격적인 외국기업 참여가 막혀 있었던 金融, 保險, 流通, 精油 및 土木 등에 걸친 사업부문을 개방하여 대부분의 業種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7) “中國經濟體制改革：計劃經濟與市場調節相結合，”「宏觀經濟與決策」，p. 3.

있다.⁸⁾ 1993년 허가된 외국투자액은 1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이며 이중 260억 달러 상당이 실제로 투자되고 있는 점은 중국의 개방정책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1990년대 중국의 성장위주 발전전략이 중국 주도의 經濟圈 形成 努力과 밀접히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中國은 全方位的인 對外開放化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면적 개방정책 추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중국 沿岸지방에서 추진된 경제의 역동성(economic dynamics)을 內陸지방으로 확대하는 데는 소득수준의 차이, 원만한 유통구조의 결핍과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대중국 內陸地方 투자가 적극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륙지방의 개방속도는 연안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緩慢할 것이다.

다. 交易의 多邊化 推進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자국의 경제발전이 개방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판단하여 대외 경제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경제가 특정 선진국경제에 크게 의존되고 있는 편향된 교역구조는 경제의 건전한 발

8) Kevin Murphy, "China to Widen Global Access to Stock Marke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4. 8. 1; 중국인민은행은 1994년말 중국의 대외부채는 약 1000억달러 규모로 지난해(835억달러)에 비해 20.6%가 증가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빚과 이자를 포함 약 200억달러를 금년내 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orea Herald*, 1994. 8. 2.

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1990년대 부터 交易相對國의 多邊化, 상품의 고급화 및 대외 무역체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對外經濟貿易部는 1992년 10월 제14차 黨大會에서 對外貿易發展을 위한 5개 원칙과 10개 목표를 제시하면서 교역의 다변화와 상품의 질적 향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과거 低價 商品에 의존한 市場擴大 戰略에서 상품의 質的 向上을 통해 수출경쟁에서 이기는(依質取勝) 市場確保 戰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小數의 國際市場 형태에서 多變化된 市場開拓을 모색할 것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같은 특정한 선진국을 배제하는 교역의 다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참여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국 主導의 개방된 경제권 형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 중국의 貿易經營改革과 交易多變化 전략에 따라 중국에서는 綜合貿易商社 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일부 국영기업과 大中小型 集體기업들 중에서 속출하고 있으며 縣級의 鄉鎮企業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체제 개혁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첫째, 貿易管理를 微視的 管理에서 巨視的 管理로, 直接管理에서 間接管理로 전환하며, 둘째, 무역 관련 기업을 法人化하

9) 중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간섭에 대해 1992년 「人權白書」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 때부터 중국의 교역상대국의 다변화정책은 더욱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고 自營權을 부여함으로써 市場競爭의 主體가 되도록 하며, 셋째, 중앙통제식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양하고 시장기능에 맡기며, 넷째, 대외무역 경영책임제를 실시하고, 다섯째, 과학 기술과 대외무역을 결합하여 高附加價值 商品輸出을 빠른 시일內에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체계를 집단화하고 경영을 국제화하려는 데 있다.¹⁰⁾

2. 中國의 東北亞 經協 戰略

중국은 연안지역의 성공적인 대외경험이 東北部지역에까지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1978년부터 추진한 홍콩과 심천경제특구와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1997년 홍콩의 중국본토에의 歸屬과 1999년 마카오의 중국歸屬 등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등과 연계한 중국경제권(화남경제권)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특히 중국은 脫冷戰이후 국가관계에 있어 경제요인이 크게 부각되어 각국 모두가 경제발전의 기회포착에 총체적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지위확보를 위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접 국가들과의 경험의 시급하다고 인식

10) 毛鋼, 錢芬琴 編, 「社會主義市場經濟學」, pp. 251~52.

11) 余建林 外 編, 「重返 GATT: 關貿總協定與中國經濟」(上海: 人民出版社, 1994. 3), pp. 374~75.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태지역의 상대적 안정성을 경제발전의 유리한 기회로 포착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본전략을 자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과 연계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에 대한 자국의 상호보완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중국의 동북아경협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경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동북아 경협이 자국의 地域經濟區로서의 특수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나, 동북아 經協의 궁극적인 역할은 중국의 대외 경협의 일부로서 나름대로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2년 各省의 경제발전 水準, 산업전문화(industrial specialization)능력, 중국경제의 현황을 감안, 전국토를 10개의 經濟地域區로 設定하였으며, 그 중에서 渤海灣地域과 東北地域(東北3省인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과 內蒙古를 포함)에 대한 경협의 주요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선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環東海경제구, 環渤海경제구, 環黃海경제구와 두만강지역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표 2 참조).

〈표 2〉 10大 經濟地域區 業種別 特化內容

지역구분	해당지역	주요특화업종
東北경제권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내몽고	중공업(특히 군수산업), 농림, 목축업, 농임산물가 공업
渤海(華北)경제권	河北省, 山東省, 北京, 天津	지식·기술집약산업, 수출 주도형 경공업, 수산업
揚子江三角州경제 권	江蘇省, 浙江省, 上海	고도정밀산업(전자, 반도체), 금융·부동산, 정보· 통신산업
華南경제권	광둥성, 복건성, 해남성 광서장족자 치구	수출주도형 경공업, 금융·보험
黃河中流경제권	산서성, 섬서성, 하남성	에너지벨트 및 중화학공 업기지 우주·항공, 임산물 가공업
揚子江中流경제권	湖南省, 湖北省, 江西省, 安徽省	수상교통의 중심지, 농임산물 가공경공업
黃河上流경제권	감숙성, 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지하자원, 수력발전개발
揚子江上流경제권	四川省, 귀주성, 운남성	에너지집약산업, 농림산업
新疆경제개발구	신강위그루자치구	석유 및 석유화학, 농림목축업
티베트특별경제구	티베트자치주	국가지원사업, 농림목축업

出處 : 경제기획원, 「韓·中 經濟協力 便覽」, 1994년 3월, p. 97.

渤海灣地域은 北京, 天津, 河北省, 山東省을 포함하는 地域으로 한국과 일본의 高級 기술산업과 수출주도형 경공업부문간의 경협을 목표로 하고 있다. 東北地域은 중국 최대의 중공업기지화와 농업, 임업,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차원에서 경협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획기적인 곡물증가 기술발전을 단기간내에 도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2000年代初의 13억 人口의 식생활 수준 유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곡물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술 및 투자향상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경협을 적극 유치하려는 戰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동북아 국가인 한·중·일·러의 자원, 인력, 자금, 기술의 상호보완관계가 동북아 경협을 계속 추진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어 왔음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90년대 경제성장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域内の 內需와 外需의 증가에 따른 무역, 투자 및 경협 확대가 더욱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외투자와 중국을 생산기지로 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주력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투자의 內需化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동북아 지역 역내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법은 작은 데서 큰 데로, 쌍무적인 데서 다자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협이 상호보완성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상대적인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협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대한반도 경협전략은 한국과 북한을 구별해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보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수준이 일본과는 달리 중간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기술도입 조건이 일본에 비해 용이한 부문이 많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을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3개의 半島(山東半島, 遼東半島, 韓半島), 北京·天津지역을 연결하는 環渤海經濟區와 동북3성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경협인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축이 되고 環東海經濟區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경협 관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지경학적 위치 즉, 중국 東北3省과 東海를 연결하는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본의 對中 투자가 東海를 경유, 두만강 및 동북3성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추진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第Ⅳ章 韓·中 經協 現況과 問題點

향후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강구하기에 앞서 한·중 간 경제협력 현황을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한·중 경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1. 兩者關係

가. 貿易部門

한국의 對中 무역관계는 수교이전 홍콩과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일부 공산품을 수입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88 서울올림픽' 이후 양국간 교역은 품목과 수출입 물량에 있어서 크게 확대되었다. 1992년 한·중 양국간의 교역은 한·중 수교이후 크게 증가, 1993년 쌍방의 직접 무역액이 90억달러 이상, 간접교역액을 포함할 경우, 약 100억달러 규모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여섯번째 무역상대국이 되고,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다.

1993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51억 5천만달러로 前年 對比 94.1%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39억 3천만달러로 5.5%증가에 그쳐 1993년 한국의 대중국교역흑자 규모는 12억 2천만달러

에 달하였다(표3 참조). 주목할 점은 그동안 대중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한국이 1993년부터 흑자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주로 중국 各省이 중앙정부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다.

〈표 3〉 韓·中 交易推移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交易規模	2,142	2,853	4,444	6,379	9,080
對中國輸出	437	585	1,003	2,654	5,151
전년대비증가율(%)	17.5	33.7	71.4	164.7	94.1
총수출중의 비중(%)	0.7	0.9	1.4	3.5	6.2
수출증가기여도(%)	-	5.6	6.1	35.0	43.0
對中國輸入	1,705	2,268	3,441	3,724	3,929
전년대비증가율(%)	22.9	33.0	51.7	8.3	5.5
총수입중의 비중(%)	2.8	3.2	4.2	4.6	4.7
貿易收支	△1,268	△1,683	△2,438	△1,071	1,222

本表는 한국의 關稅廳의 通關基準에 의한 통계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홍콩을 거쳐 재수출되는 間接輸出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出處: 韓國貿易協會, 1994년 2월, p. 31.

한·중수교 前後의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 특징을 상품 내용 별로 보면(표 4참조), 1993년도 경우, 한국은 철강제품(약 10억달러), 다음으로 유기화학품(약 7억달러), 수송기계(자동차

및 부속품, 약 6억달러), 섬유직물(약 4억달러), 유류제품(약 3억달러), 전기, 전자기기와 부품 등의 순으로 중국에 수출하였다. 반면, 한국은 곡물류(약 11억달러), 섬유직물(약 6억달러), 석탄 등 광물성 연료(약 4억달러), 인조섬유의 순으로 수입하였고 고사리, 파, 미꾸라지, 냉동홍합 등을 大量 중국으로부터 輸入하였다.

1992년과 1993년을 비교해 보면(표 4 참조), 한국의 수송기계와 유류제품의 수출은 각각 3000%와 40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한국의 수송기계와 유류제품, 고급 섬유직물의 수출은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의 사회간접시설 확대정책에 따라 철강, 유기화학 수요의 급증으로 한국의 철강과 유기화학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일부 전자부품과 농산품의 가격 저렴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자제품 수입이 증가되고 농산물 수입 또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확대되고 한국의 대중 교역 흑자폭도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쌍방 교역이 중·일간 총교역규모의 30%선에 머물고있어¹²⁾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교역확대 방안을

12) 일본 무역진흥회(JETRO)는 1993년도 대중무역액이 92년보다 39.9%가 증가한 378억달러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92년 일본의 5번째 교역국이었던 것이 93년에는 미국에 이어 2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내수요 급증에 따른 승용차 수입이 2.5배, 전화 등 통신기가 2배 증가됨에 따라 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1994. 1. 25.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봄 한국과 중국은 1997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와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를 각각 280억달러(94년도의 3배)와 40억달러(94년의 4배)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1994년 한·중정상회담時 양국간의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표 4〉 韓·中 交易商品 分類

단위: 백만달러, ()은 증가율 %

구 분	수 출		구 분	수 입	
	1992	1993		1992	1993
철강제품	797.3 (468)	1,069.2 (34.1)	농 산 물	1,102.0 (16.8)	1,113.3 (3.4)
유기화학품	496.3 (190)	697.9 (40.6)	섬유직물	572.9 (14.2)	621.2 (8.4)
수송기계	20.0 (79.2)	599.4 (2900)	광물성연료	434.8 (38.3)	435.6 (0.2)
섬유직물	258.3 (75.2)	418.4 (61.9)	섬 유 사	138.1 (16.0)	196.6 (42.3)
유류제품	82.7 (436)	337.8 (309)	철강제품	208.6 (-33.8)	175.3 (-16.0)
일반기계	131.6 (139)	331.6 (152)	섬유제품	101.5 (117)	170.4 (67.9)
가죽 모피	140.4 (105)	273.2 (94.5)	생활용품	90.9 (80.0)	154.9 (70.5)
섬유원료	130.3 (24.3)	219.0 (68.0)	유류제품	92.5 (62.4)	134.8 (45.6)
전자부품	80.7 (-20.1)	180.1 (123.2)	유기화학물	102.4 (-14.0)	125.8 (22.9)
종이제품	90.2 (206)	123.5 (36.8)	전자부품	57.8 (124)	123.6 (114)
수출총액	2,653.6 (165)	5,151.0 (94.1)	수입총액	3,724.9 (8.3)	3,928.7 (5.5)

出處: 韓國貿易協會, 1994년 2월, p. 31.

나. 投資部門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는 1988년부터 종래의 迂廻投資가 直接投資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까지 총 투자件數가 許可基準으로 모두 52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대중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12건에 8천5백만달러가 허가되고 4천8백만달러가 실제 투자되어 대중 투자액이 한국의 대외 투자 총액의 3.8%에 달하였다(표5 참조).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는 액수는 홍콩 등 제 3국을 경유한 迂廻投資가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정부의 허가없는 투자도 있기 때문에 실제투자건수와 액수는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 전후의 한국의 對中 투자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對中 투자가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한·중수교 전후의 대중 투자 건수와 투자액을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은 투자 건수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투자액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 件數는(實投資件數) 1992년 171건에서 1993년말 377건으로 전년대비 22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1993년의 투자건수가 과거 5년간의 총계의 70%를 초과한 규모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이 총 해외투자에서 점하는 비중은 실행건수로는 55%, 실행금액 기준 21%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對한국 투자가 미약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표 6 참조). 이는 한·중간의 투자협력이 양국간의 要素賦存性과 산업구조 및 경제발전단계 등의 차이로 한국의 對中 투자가 일방적인 형태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며 이 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¹³⁾

넷째, 한국의 對中 투자(실투자금액)는 역내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적은 점이다. 1992년 경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일본의 대중 투자의 17%, 臺灣의 대중 투자의 11%에 불과하다(표 7-2 참조). 이는 한국의 대중 투자성격이 量的 膨脹에 치중되어 質的 向上이 시급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산업면에서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통해 분업위주의 투자에 주력하여야 장기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에 뒤지는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13) 金時中, “韓 中經濟關係의 現況과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참조.

14) 한국은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수직적 분업 위주의 투자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수평적 분업관계를 고려하여 대중 투자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

(단위: 건, 백만달러, ()은 %)

구 분	1988~1989	1990	1991	1992	1993	누적잔고
허가기준						
건 수	14 (2.3)	38 (7.4)	112 (20.8)	269 (42.6)	629 (59.9)	1,042 (29.9)
금 액	13.2 (0.9)	54.5 (3.4)	84.7 (5.3)	221.9 (18.3)	622.4 (33.2)	960.0 (13.5)
건당 평균규모	0.9	1.4	0.8	0.8	1.0	0.9
실투자기준						
건 수	7 (1.6)	23 (6.8)	69 (15.2)	171 (34.2)	377 (55.3)	646 (23.7)
금 액	6.4 (0.8)	16.0 (1.7)	42.5 (3.8)	141.2 (11.3)	262.4 (20.9)	465.0 (8.6)

* ()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出處: 韓國銀行, 「韓 中經濟協力の 新構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 p. 26, 재인용.

〈표 6〉 中國의 對韓 直接投資 推移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건 수	1	1	3	6	29
금 액	2.8	0.1	0.69	1.05	6.29

出處: 「韓 中經濟協力の 新構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 p. 26 재인용.

〈표 7-1〉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I) 〈契約基準〉

(단위: 건, 백만달러, ()은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79~92누계
총외국인 직접투자	건 수	5,945	5,779	7,273	12,978	48,764	90,791
	금 액	5,297	5,600	6,596	11,977	58,124	110,461
홍콩· 마카오 ¹⁾	건 수	4,771 (80.3)	4,244 (73.4)	5,001 (68.8)	8,879 (68.4)	31,892 (65.4)	63,405 (69.8)
	금 액	3,583 (67.6)	3,244 (57.9)	3,943 (59.8)	7,507 (62.7)	1,531 (71.5)	74,101 (67.1)
대 만	건 수	435 (7.3)	522 (9.6)	1,011 (13.9)	1,737 (13.4)	6,430 (13.2)	10,245 (11.3)
	금 액	520 (9.8)	437 (7.8)	892 (13.5)	1,391 (11.6)	5,540 (9.5)	8,970 (8.1)
미 국	건 수	269 (4.5)	276 (4.8)	357 (4.9)	694 (5.3)	3,265 (6.7)	5,265 (5.8)
	금 액	370 (7.0)	641 (11.4)	358 (5.4)	548 (4.6)	3,121 (5.4)	8,13 (7.4)
일 본	건 수	237 (4.0)	294 (5.1)	341 (4.7)	599 (4.6)	1,805 (3.7)	3,696 (4.1)
	금 액	276 (5.2)	439 (7.8)	457 (6.9)	812 (6.8)	2,172 (3.7)	6,082 (5.5)
한 국	건 수	n·a	n·a	n·a	n·a	650 (1.3)	943 (1.0)
	금 액					417 (0.7)	619 (0.6)

1) 이 중 97% 이상이 홍콩의 투자이며, 마카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出處: 「對外經濟貿易年鑑」(中國) 各年號, 1992년 통계는 *China Economic News*, May 24, 1993.

臺灣의 投資統計는 「經濟前瞻」 31호 (1993. 7), p. 87 (中國對外經濟貿易部の 발표에 기초)

韓國의 資料統計는 위 *China Economic News* 및 孫漢超, 「中·韓經貿現象及存在的問題」, 제3차 韓·中 經濟知識交流會發表論文, 中國: 北海, 1993, 10, p. 4.

〈표 7-2〉 主要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Ⅱ) 〈實行基準〉

(단위: 백만달러 ()은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84~92누계
총외국인 직접투자	3,193.7	3,392.6	3,487.1	4,366.3	11,007.5	33,010.7
홍콩· 마카오	2,095.2 (65.6)	2,077.6 (61.2)	1,913.4 (54.9)	2,486.9 (57.0)	7,709.1 (70.0)	20,705.7 (62.7)
일본	514.5 (16.1)	356.3 (10.5)	503.4 (14.4)	532.5 (12.2)	709.8 (6.4)	3,577.2 (10.8)
미국	236.0 (7.4)	284.3 (8.4)	456.0 (13.1)	323.2 (7.4)	511.1 (4.6)	3,001.8 (9.1)
대만	n·a	n·a	222.4 (6.4)	466.4 (10.7)	1,050.5 (9.5)	1,900.0 ¹⁾ (5.8)
한국	n·a	n·a	n·a	n·a	119.5 (1.1)	276.0 ²⁾ (0.8)

出處: 「中國統計年鑑」各年號

1) *Financial Times*, 9 August 1993.2) 孫漢超, 「中·韓經貿現象及存在的問題」, 제3차 韓·中
經濟知識交流會發表論文, 중국: 北海, 1993. 10, p. 4.

다섯째, 1993년 전반기까지의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기 보다는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소규모투자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자나 국내로의 逆輸入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6월말 경우 한국의 對

中 투자업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製造業부문(6억2천만달러, 94.5%)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非製造業부문은 3천6백만달러로 총투자액의 5.5%에 불과하였다.

제조업중 非金屬 鑛物製造業이 1억2천만달러로 총 투자액의 18.5%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섬유 의류업이 1억달러로 총 투자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비제조업중 음식숙박업이 2천3백만달러로 총 투자액의 3.6%이며 다음으로는 농축산업이 5백만달러로 총 투자액의 0.8%에 그치고 있다.

〈표 8〉 韓國의 中國投資 業種別 分布(1993. 12~1993. 6)

구 분	건 수	비 중(%)	금액(백만달러)	비 중(%)
제 조 업	962/644	92.2/95.4	890.7/622.0	91.2/94.5
음 식 료 품	70/47	6.7/7.0	30.0/21.5	3.1/3.3
섬 유 · 의 류	232/155	22.2/22.9	143.5/103.0	14.7/15.7
신 발 · 피 혁	97/70	9.3/10.4	100.4/75.1	10.3/11.4
목 재 · 가 구	42/29	4.0/4.3	14.4/7.9	1.5/1.2
종 이 · 인 쇄	15/10	1.4/1.5	6.5/4.6	0.7/0.7
석 유 · 화 학	64/37	6.1/5.5	67.3/30.5	6.9/4.6
비 금 속 광 물	32/23	3.1/3.4	129.1/121.7	13.2/18.5
1 차 금 속	23/19	2.2/2.8	14.9/13.9	1.5/2.1
조 립 금 속	121/73	11.6/10.8	189.0/93.9	19.3/14.3
기 계 · 장 비	35/21	3.4/3.1	31.3/25.6	3.2/3.9
기 타 · 제 조 업	231/155	22.1/22.9	164.3/119.4	16.8/18.1

구 분	건 수	비 중(%)	금액(백만달러)	비 중(%)
비 제 조 업	81/31	7.8/4.6	86.3/36.1	8.8/5.5
광 업	9/5	0.9/0.7	4.3/1.6	0.4/0.2
농 축 산 업	6/2	0.6/0.3	6.5/5.2	0.7/0.8
무 역 업	7/5	0.7/0.7	2.4/2.0	0.2/0.3
수 산 업	15/10	1.4/1.5	4.6/2.9	0.5/0.4
운 수 보 관 업	5/1	0.5/0.2	6.5/0.5	0.7/0.1
음 식 숙 박 업	12/7	1.2/1.0	24.7/23.5	2.5/3.6
임 업	2/1	0.2/0.2	0.7/0.6	0.1/0.1
건 설 업	4/0	0.4/0	9.9/0	1.0/0
부 동 산	1/0	0.1/0	17.0/0	1.7/0
기 타 서 비 스	20/0	1.9/0	9.7/0	1.0/0
총 계	1,043/675	100.0/100.0	977.0/658.1	100.0/100.0

出處: 韓國銀行;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 p. 27; KIEP 지역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재인용.

여섯째, 한국의 대중 투자구조가 지역면에서 편향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 산업체제의 고도화를 염두에 둔 중국 기타 지역에 대한 다변적이고도 다양한 투자구조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최대 투자지역으로는 山東省이 對中 총투자액의 38.3%에 달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東北3省의 요녕성(12.8%), 흑룡강성(7.96%), 길림성(4.7%) 순으로 투자지역이 이뤄지고 있다(표 9 참조).

1994년 흑룡강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의 대륙종합개발회사가 흑룡강성 정부, 흑룡강성 농업개발건설총공사와 50:50으로 합작, 총 2,850만달러(한화228억원)규모로 富錦市 일대 1억1천4백만평의 三江平原개발을 위한 頭興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1994년 7월 5일 착공하였다.¹⁵⁾

〈표 9〉 韓國의 中國投資 地域別 分布(1993. 12~1993. 6)

구 분	건 수	비 중(%)	금액(백만달러)	비 중(%)
渤海灣地域	498/328	47.7/48.6	591.4/411.9	60.5/62.6
山東省	293/207	28.1/30.7	374.3/289.0	38.3/43.9
天津市	109/65	10.5/9.6	131.1/62.5	13.4/9.5
北京市	69/40	6.6/5.9	62.4/49.4	6.4/7.5
河北省	27/16	2.6/2.4	23.6/11.0	2.4/1.7
東北3省	399/260	38.3/38.5	248.3/156.0	25.4/23.7
遼寧省	221/154	21.2/22.8	125.2/93.7	12.8/14.2
吉林省	99/63	9.5/9.3	46.2/25.7	4.7/3.9
黑龍江省	79/43	7.6/6.4	76.9/36.6	7.9/5.6

15) 연합뉴스, 1994. 7. 5; 한 중 양국 기업은 1차 합작기간 40년, 양측 합의하에 최장 120년간을 공동개발, 운영키로 1992년 7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결과 1994년 10월 약 1천50만평에 콩을 파종하여 약 5천 250M/T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金成勳, "동북아 경제진출의 시금석: 삼강평원과 두만강삼각주 개발," 「전망」, 1994. 7, pp. 26~28; 삼강평원이 농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생산에 착수한 후 5년간은 소득, 법인세가 면제되고 다음 5년간은 50%만을 내고 10년이후에는 세금을 100% 산출물량을 한국기업이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全량을 현물로 한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일보」, 1994. 6. 25.

구 분	건 수	비 중(%)	금액(백만달러)	비 중(%)
華 中 地 域	74/38	7.1/5.6	71.2/47.4	7.3/7.2
上 海 市	19/9	1.8/1.3	18.6/13.2	1.9/2.0
江 蘇 省	44/23	4.2/3.4	45.9/30.4	4.7/4.6
折 江 省	11/6	1.1/0.9	6.7/3.8	0.7/0.6
華 南 地 域	52/37	5.0/5.5	59.6/40.0	6.1/6.1
廣 東 省	40/26	3.8/3.9	42.6/26.9	4.4/4.1
福 建 省	10/9	1.0/1.3	16.2/12.3	1.7/1.9
海 南 省	2/2	0.2/0.3	0.8/0.8	0.1/0.1
其 他 地 域	20/12	1.9/1.8	6.6/2.8	0.7/0.4
總 計	1,043/675	100.0/100.0	977.1/658.1	100.0/100.0

出處: 韓國銀行;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 p. 27; KIEP 지역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재인용.

그러나, 1993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투자환경과 要件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한국의 비제조업 부문 對中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부동산, 서비스 관련 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표 8 참조). 한국의 비제조업 부문 투자는 1993년 6월말 3천6백만달러(총투자액의 5.5%)에서 1993년말 8천 6백만달러(총투자액의 8.8%)로 증가하였고 제조업 역시 6억 2천2백만달러에서 8억9천백만달러로 증가한 한편, 투자액 비중은 94.5%에서 91.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의 투자액이 미미한 점을 중시, 한국이 中國內

대형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이미 큰 발전이 있었으나, 양국이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 처한 지위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한국측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자국에 대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게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한국측이 제시하는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1993년 9월 金喆壽 한국 상공자원부장관의 訪中時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중 차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였다. 한국은 경제협력 전반에 걸친 협의를 위해서도 중국의 國家經濟貿易委員會가 파트너가 되도록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이 對外貿易經濟合作部를 지명하여 양국간 위원회 설치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金泳三 대통령의 1994년 3월 訪中을 前後해 「한·중 산업협력위」설치를 거듭 요청하여 중국측의 확답을 얻었다.¹⁶⁾

1994년 한·중 산업협력 체결이후, 한국의 자본, 기술집약업종의 대중 투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규모의 대형화와 업종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1994년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액 규모와 비중면에서 볼때, 중국이 미국에 이어 우리의 두번째 투자국

16) 「매일경제신문」, 1994. 2. 14

으로 부상할 것이며 향후 투자액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특히 電子(고화질TV), 자동차(부품에서 완성차로 단계적 이행), 차세대 전자교환기, 항공기 합작생산(2000년까지 중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중국과 협의하고 나아가, 건설(사회간접자본), 광물자원, 통신분야의 합작 내지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있다.¹⁷⁾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확대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電子部門 투자 전망이 가장 밝다 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전자부문 중 특히 VCR생산 주요기술 부문의 결여로 한국의 대중국 VCR 생산기술 移轉 및 투자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3대 가전업체인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는 제품개발과 중국 현지에 공장 확장을 통해 內需를 겨냥한 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다. 금성사는 중국연안지역 중 상류층 3천만명을 대상으로 PAL방식의 VCR, 대형컬러TV, 영상가요반주기 등의 생산을 위해 惠州 오디오공장을 확장, 1994년 9월부터 연간 1백만대 생산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上海 VCR공장도 1995년 3월부터 年間 30만대의 量産체제와 TV공장 설립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1993년 8월부터 가동중인 天津 VCR공장을 年産 60만대에서 1백만대로 증설하였으며, 9월에는 惠州 Compact

17) 「매일경제신문」 1994. 3. 30

Disk 오디오 공장을 설립하였다.¹⁸⁾

중국이 1994년 생산량을 1. 5백만대, 1990년대 말에는 3백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VCR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¹⁹⁾

둘째, 한국의 대중 완성차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1992년에 이미 16만대의 승용차와 버스를 포함 1백만대를 조립 생산하였으며 2000년대 초 200만대의 승용차와 버스를 포함 약 300만대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²⁰⁾ 다른 외국기업의 신규 진출을 억제하는 ‘3大3小2微’정책의²¹⁾ 고수로 한국의 완성차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공장 진출은 허용하되 완성차 조립생산은 부품공장 합작결과에 따라 2~3年後 다시 검토하기로 한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완성차 진출이 막힘으로써 한국자

18) 「매일경제신문」, 1994. 7. 20.

19) Wang Xi, "China in the Year 2000", in *Asia in the 21st Century, 1993: Korea-China Relations* (서울: 건국대학교, 1993), p. 58.

20) 앞의 글

21) ‘3大3小’中 ‘3大’는 독일 Volkswagen(Audi, Jetta, Golf)과 합작한 길림성 長春의 제1자동차, 프랑스 Citroens (Fx 15형)과 협력한 호북성의 제2자동차, Volkswagen(Santana)와 합작한 上海의 大衆자동차를 말하며, ‘3小’는 미국 AMC(크라이슬러: Cherokee Jeep)와 협력한 北京지프, 일본 다이하쥬(大發)와 기술제휴한 天津微型汽車廠, 프랑스 Peugeot(505SW, 504 PU형 등)과 협력한 廣州標致汽車有限公司를 지칭한 다. ‘2微’는 중국과 기술제휴하고 있는 2개사인 스즈끼사(중국측은 長安자동차)와 후지중공업(중국측은 貴州航空)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미약한 점을 지칭한 것이다. "China Reportedly Bans New Car-Making Plan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4. 4. 11, p. 9.

동차 시장 점유율의 신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품공장의 합작사업만 실현됨으로써 중국의 노동력과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로 중국측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합작하여 생산한 부품을 중국내에서 전량 소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한국이 중국에 부품생산 기술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²²⁾ 이렇듯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산업 진출은 어려울 것이나, 大宇기업이 중국 산둥성에 있는 제남 버스공장과 1995년중반부터 연산 5000대 버스조립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에 중국에 20~30만대 승용차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²³⁾ 한국의 對中 완성차합작생산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⁴⁾

셋째, 中型항공기 합작사업과 관련, 한국은 항공기생산을 통해 고도의 기술을 획득하고 부품생산 단계를 벗어나 자체의 항공산업의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최종조립 장소 선정문제로 인한 중국측 협상타결과 제3국과의 기술협상 문제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합작 전망은 밝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중

22) 「한겨레신문」, 1994. 4. 1.

23) *Korea Herald*, 1994. 8. 20.

24) 생산능력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일본의 九州, 그리고 중국의 上海以北의 주요 도시 및 이들 주변지역은 세계 생산능력인 5천만대의 약 10% 가량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승용차와 상용차를 합하여 약 285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도요타와 닛산이 연간 60만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任千錫 편,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6. p. 52.

양국이 最終組立 공장을 각기 자국내에 설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만일 중국이 고집할 경우, 한국이 한국과 중국에 두 개의 최종조립 공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항공 기술수준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합의한 바 있으나, 고급기술 이전문제를 꺼리고 있는 미국의 보잉사, 독일의 DASA사, 프랑스 콘소시엄인 ATR사 등이 합작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네째,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분야 투자전망은 밝다 할 것이다. 2000년대 중진공업국(‘準工業國’)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은 과거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산업이 GNP의 40%를 초과하고 있는 반면, 자국이 1989년 경우 GNP의 26.5%와 총취업인력의 1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분야 등 제3차 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²⁶⁾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 보험, 관광산업 등 대중국 서비스분야 진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한국의 대중국 原油 및 석탄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油開公, 油公 등 8개사는 총 예상 매장량 1억 2천5백만배럴로 추정되는 동지나해 해상광구 탐사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油開公, 漢拏資源, 韓寶 등 3개사도 중국 국영회사와 貴州省 黔南지역 油田광구를 공동개발키로 합의하고 금년

25) 「중앙일보」, 1994. 7. 23; *Korea Herald*, 1994. 8. 20.

26) Wang Xi, "China in the Year 2000", p. 58.

내 조사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東部産業도 총 2억 4천만元 (2천8백만달러)을 투입, 黑龍江省 칠대하市 2개 유연탄광(추정매장량 각각 5천만톤, 6천4백5십만톤)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²⁷⁾

油公은 심천에 1994년 6억달러규모의 중국합작 정유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중국석유화학총공사(SINOPEC)와 총15억달러를 투자, 日産 11만배럴 규모의 상압증류(정제)시설을 갖춘 대규모 정제공장을 오는 1998년까지 완공기로 합의하였다. 유공의 이같은 투자규모는 한·중합작사업중 최대일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單一 해외투자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 하겠다.²⁸⁾

2. 多者 關係

다자 관계에 있어 한·중 경협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은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이다. 1991년 7월 중·러·북한의 국경지역인 두만강 하구 삼각주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유엔개발계획(UNDP)주도하에 한국, 몽골까지 참여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협의하기 시작하자,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이 지역을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

27) 「매일경제신문」, 1994. 1. 30.

28) 「매일경제신문」, 1994. 3. 30.

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1년 12월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 경제 지구개발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이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하였으며, 중국은 1992년 블라디보스톡 항구 및 훈춘과 접경하고 있는 핫산지구가 개방되는 시점에 맞춰 동년 2월 공식적으로 훈춘지역을 개방하였다.²⁹⁾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이 지역 개발투자가 미흡한 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인 吉林省이다.³⁰⁾ 중국은 동북3성의 경제개발 촉진과 두만강개발을 연계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난을 십분 활용, 양국으로 부터 두만강 河口的 出海權을 획득 직접 東海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12월 19일 당시 楊尙昆 중국 前국가주석과 열린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東北亞 運輸問題 解決’에 관한 協定書를 체결하고 이를 전후로 중·러 간에 철도부설 및 항구건설에 관한 협정서가 체결됨으로써 중국은 훈춘-크라스키노 철도부설권(약 32Km)과 자루비노 항구사용권을 획득하고 홍콩기업과 일본의 투자자금을 약속받았다. 또한, 1993년 3월 중국은 북한으로 부터 훈춘 - 선봉 철도복원사업을 획득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이 한국 東海岸과

29) 吳勇錫, “한국경제 선진화 위해 동북아 경제블럭 구축 필요,” 「展望」, 1994. 7, pp. 38~39.

30) 중국의 두만강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金學洙, 「豆滿江 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3, pp. 21~36를 참조.

일본 서북해안의 항구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하였으며 한·중 양국기업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합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³¹⁾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다자간 동북지역 개발이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쌍무협정에 의해 착수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1992년 10월 한국기업인의 訪北이 한국의 북한핵문제 해결이전의 대북 경험 동결정책으로 인하여 大字기업의 南浦工團 調査派遣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다자 협의나 쌍무협력을 통한 대북 투자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철도와 도로 연결 및 나진항 확장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의 동북아철로항구집단공사는 중국 자신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및 유럽기업들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조사를 마친 상대임을 강조하면서 1994년 5월 중국측 나진·선봉 투자조사단에 북한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과 학자들의 참여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³²⁾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제3국을 통한 본격적인 對

31) 金成勳, “동북아 경제진출의 시금석: 삼강평원과 두만강삼각주 개발,” pp. 28~31. 중국은 이미 북경으로 이어지는 만주철도의 종착지인 도문과 훈춘을 연결하는 약65km의 철도(도훈철도)를 완성한 바 있다. 1994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자루비노 항구의 확장에 소요되는 경비는(약 3억5천만달러) 홍콩과 일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본 동북아경제위원회가 5천만달러, 일본정부가 약 6억엔의 상업차관을 약속하였으며, 홍콩의 泛安그룹과 길림성 政府가 합작으로 吉港工程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32) 「매일경제신문」, 1994. 1. 3, 劉栢宋 동북아철로항구집단공사총재가 1993년 1월 한국방문에서 언급한 사항임.

北 經協까지도 동결하고 있어, 중국이 요청하는 대북한투자
한 중 합작사업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와 반면, 북한은 金日成 사망이후 두만강지역에 대한 도
로, 철도 등의 인프라투자의 집중적인 투자를 재촉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의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밖의
관계국(한국을 포함)에 의한 '동북아개발조정위'의 구성을 제
안하고 있다.³³⁾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불안요인을 먼저 제
거하는 것이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유리한 여건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중국의
생산적인 역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북
·중관계의 특수성과 북한내 투자환경 미비 등을 고려하여 한·
중간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경제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問 題 點

한·중 양국은 1992년 2월에 민간협정 방식으로 체결한 무
역협정을 동년 9월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필두로
투자보호협정(92. 9), 해운협정(93. 5) 등 각종 경제협력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으며(표 10 참조), 94년 2월 산업협력강화협

33) 북한 세계경제 남남협력연구소 李幸浩소장과 대외경제협력추진위 文松原과장
등 4명은 1994년 7월 29일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경제발전전략
국제회의에서 언급한 사항임. 「중앙일보」, 1994. 7. 30.

정에 서명(94. 2)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교류와 합작 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한 각종 협정들이 한·중 교역과 투자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국의 諸협정 준수의 意志缺如와 제도적 장치의 미보완 등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중 교역과 투자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양국이 주장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첫째, 중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수출 의무비율(보통 70%)이 과도함으로 이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한·중 合作時 중국측 투자분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후에도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합작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省정부, 市정부 당국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평가액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합작회사 설립시에 발생하는 복잡한 승인과정 등 투자절차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첫째,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역조 현상의 시정, 중국인력의 한국진출 확대, 중국의 GATT가입 지원³⁴⁾, 쌀, 쇠고기 등 농수산물 수입확대 등을 요구하고

34) 중국은 자국의 GATT 가입 조건에 대한 美國의 반대로 1994년 상반기에 GATT 가입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비난하여 왔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이미 개발도상국의 규모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치산업과 농산물보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개방하지 않는 점, 중국이 미국의 컴퓨터

있다. 둘째,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와 관련해 규모의 영세성, 지역의 편중성, 근로조건의 前近代性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발해만지역과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대중투자가 在中조선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勞組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의 낙후성과 한국기업들의 중국의 투자정책 및 법규 등에 대한 이해의 결여, 한국기업의 주먹구구식 중국 진출과 한국내 중국전문가의 부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한국이 일부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부당한 反덤핑조사의 실시와 일부 한국기업의 投機性的인 무역형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조정관세 폐지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³⁵⁾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요청에 대해 GATT가입의 지지 등을 표시하면서도 중국의 값싼 농산물의 전면적인 국내유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중국측의 쌀, 쇠고기

소프트웨어, 특허권 및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적자(1993년 경우 230억달러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불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유치산업과 농산물의 보호 정책은 유지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China Accuses U. S. of Blocking GATT Entry," Reuter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4. 7. 28, p. 9; "China Lets U. S. Makers of Software Bring Sui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4. 7. 28, p. 13; Robert A. Manning, "Cliton and China: Beyond Human Rights," *Orbis*, Vol. 38, No. 2(Spring 1994), p. 204.

35)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국제투자신탁공사(CITIC)의 북경 [韓中경제협력의 新構圖]세미나(1994년 3월 23일)에서의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焦素芬투자관리司長(국장)의 언급; 중국 化工進出口總公司 鄭敦訓회장의 언급, 「매일경제신문」, 1994. 3. 24, p. 9, 1994. 3. 30.

등 각종 농산물의 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한국은 低價의 中國 産에 대해(농산물 14개, 공산품 6개 등 20개 품목)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한국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정관세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중국의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자대책의 시급성이다. 중국은 그동안 인플레이를 대가로 고도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기대치인 물가상승을 10% 억제하는 이미 붕괴되어 주요 도시에서는 22~23%에 달하고 있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이 부실기업의 追加資金 요청을 거부하고 인플레이 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15%의 물가상승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³⁶⁾ 특히 上海浦東地區의 토지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외국제조업체의 이 지역에서의 진출이 점차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빠른 시일내에 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³⁷⁾

36) *South China Morning Post*, 1992. 7. 18.

37) Henny Sender, "Location Isn't Everythi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6. 23, p. 57.

〈표 10〉 각종 경제협력 협정체결 현황

협정명칭	서명일	발효일	비고
○ 무역협정	'92. 9.30	'92.10.30	- 민간협정('92. 2. 1) 이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
○ 투자보장협정	"	'92.12. 4	- 민간협정('92. 5. 2) 이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
○ 과학기술협정	"	'92.10.30	
○ 경제, 과학, 기술공동 위원회설립에 관한 협정			
○ 건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92. 1. 8	'93. 2. 7	
○ 상사중재협정	'92.12.15	'92.12.15	- 민간협정 1」
○ 해운협정	'93. 5.27	'93. 5.27	
○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93. 7.24	'93. 7.24	
○ 환경보호협정	'93.11.	'93.11.	
○ 산업협력강화협정	'94. 2.		

第 V 章 韓·中 經協의 推進方向

地經學的으로 한반도 주변 4強이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변 4강과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는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세계 제2의 경제규모인 일본, 천연가스등 풍부한 賦存資源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 등은 선진국의 개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수교이후 한·중 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한반도의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개방유도등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바, 한·중 경협 확대를 통한 한·중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증대는 한국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대중 경협관계를 한국의 산업구조의 재조정정책과 우선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몇가

지의 특화된 고도의 기술과 곡물류 및 에너지부문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지를 중국內에 점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제조업부문이 총산업구조의 30%로 1980년대 중반기 대만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반이 약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따른 한국의 勞動集約 업종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것이 예상되어 향후 한국의 內國투자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는 임금과 地價의 急騰, 투기성 산업의 발생, 비정상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 어렵고, 힘든 제조업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단순 노동력의 부족, 환경관련 규제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집약 산업의 중국 東北3省 이전을 추진하고, 생산기반조성 여건이 좋은 동북3성에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적극 진출하고, 국제무역항 역할을 하고 있는 大連, 營口에도 적극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³⁸⁾

둘째,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결정 능력과 융통성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대중국 업종 진출이 특정

38) 1992년 경우 중국 총무역액중 동북지방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이고 화북지방은 6%에 지나지 않아 가능성이 큰 지방이다. 요녕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이고 大連港은 일본, 동남아와의 교역이 이뤄지고 營口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유럽과의 貿易路를 열기위해 새로운 무역항을 건설중이다. 吳勇錫,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p. 88.

지역에 과다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대중국 업종별 진출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등한시 하여왔던 華中地域에 대한 한국의 전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이 上海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지역을 대규모 기술집약형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소비수준이 점차로 나아지고 있는 점과 부동산가격이 廣東地域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감안, 한국은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등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전자, 정밀기기 등 일부 기술집약업종과 주택 건설 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세계,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 경쟁관계를 최소화하면서³⁹⁾, 상호보완관계를 계속 유지, 확대하는 방향에서 산업협력을 지속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일·러 대만 등의 대중 경험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 경험은 주로 교역량의 양적 팽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질적 협력을 통한 경험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⁴⁰⁾ 뿐만 아

39) 현재 선진권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優位를 확보하고 있는 기계및 운수장비(SITC 7류)를 제외하고 식료품(0류), 원료 또는 연료성재료(3~4류), 화학물 및 관련제품(5류), 잡제류(8류)의 대부분은 중국 우위의 競合관계에 있다. 식료품, 비료(56류)를 제외한 화학물 및 관련제품 중의 대부분 제품, 철강(67류), 고무제품(62류) 등을 제외한 많은 재료별 제조제품 및 대부분의 잡제품은 선진권 市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시장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韓·中間의 輸出競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吳勇錫,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pp. 137~140 참조.

40) 円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산업계는 해외생산, 소비기지확보 차원의 장기전략으로 생산기반조성 여건이 유리한 중국에 첨단고급 기술인 전자, 자

나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이 일정 부분의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異見이 노출되고 있고 일본의 대중 경험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예상보다 2~3년 빨리 중국이 한국이 지닌 비교우위부문 조차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과의 산업협력 확대논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네째, 중국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실용화되고 중국의 식용부문, 일차 금속, 화학, 제지업 등의 內需市場 需要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한국은 대중국 합작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단독투자기업이나, 집단적인 콘세시움형 투자를 적극 권장, 육성하고 여러 분야의 중국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은 교역, 투자 등과 관련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省, 市, 縣 등 지방정부 및 企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 차원에서 중국과의 대북한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국 東北3省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前進基地 설정이라면, 한·중의 대북한 합작투자는 북한의 개

동차부품, 화학, 철강부문 등에 까지 대거 자국의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 함으로써 수년내 중국이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경쟁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놀타카메라는 1994년 10월 중국과 합작으로 上海에 카메라 생산공장을, 武漢市에 복사기생산공장 설립 예정과 리코, 캐논도 중국에서의 사무기기 및 소모품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요전기는 팩시밀리를 중국에 위탁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마쓰시타전기는 현재 13개 중국내 생산거점을 2년내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디오부품 및 에어컨 콤프레서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매일경제신문」, 1994. 7. 25.

방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중국과의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경제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북한간 무역중 에너지(원유)와 곡물류의 대북한 수출의 70%정도를 점하고 있는 동북3성과의 경협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의 대북한 進出 立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3성의 경제개방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의 급증, 북한의 경제난 가중, 물물거래, 품목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50%이상의 관세 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중 북한의 변경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⁴¹⁾, 延邊自治州를 기점으로 비누, 치약, 운동화 등 소비재품목 생산을 중심으로 한 한·중 변경무역합작회사를 설치,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훈춘 延吉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합작하여 대북한 진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93년 6월 현재, 북한은 東北3省의 200개 業體中 15개를(투자액 4백5만달러) 연변자치주 延吉市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85개 업체를, 홍콩은 23개 업체를 두고 있다.⁴²⁾

41) 변경무역액은 1991년 8천만달러에서 1992년 3억달러로 급증하였으며 현재, 연변자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기업수는 22개로 주로 음식점, 호텔 등 작은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Rone Tempest, "China-N. Korea border shows weak spot of sanction threat," *Korea Herald*, 1994. 6. 23.

42) 중 북한간의 국경무역의 품목을 보면 중국은 옥수수, 밀, 쌀, 식용기름 등

셋째, 한국의 대북 진출 수송망 구축을 위한·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 진출 수송력은 더욱 증가될 것인 바, 이는 중국 동북3성에서 생산된 상품이 이미 연길 - 청진구간을 경유하고 있으며, 이어 도문 - 청진간 철도건설과 나진 선봉지역 수송망 사업에 한국을 포함,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⁴³⁾

식량과 석탄, 석유 등 에너지, 군수품, 냉장고, 자전거, 비누, 치약, 운동화, 의류 등 경공업제품, 건설용 또는 군용폐장비, 중고 기계류 등을 북한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인한 석유수입의 어려움과 북한의 석탄 채광능력의 급속한 하락으로 훈춘지방 등에서 석탄을 대량 구입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품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철강, 목재, 시멘트, 아연, 동, 규사, 등 원자재와 광물질, 명태, 조기 갈치 등 자연식품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3년 중국 동북3성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는 2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김국후, “북한·중국 국경무역의 현황과 의미”, 『통일한국』, 1994. 5, pp. 32~36.

- 43) 延吉의 鮮虎기업집단은 淸津東港 사용권(50년)획득에 따라 연길 - 龍井 - 三合 - 會寧 - 청진 구간을 이미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두만강을 통한 東海의 진출이 지연되자, 중국이 연간 50만톤 규모의 창고를 공동건설, 사용에 합의하고 러시아 자루비노港 확장공사에 참여하여 러시아측으로 부터 자루비노항 사용권을 획득, 훈춘 - 자루비노로 통해 東海로 진출하고 있다. 자루비노항은 이미 한국의 속초와 여객선운항이 합의 된 바 있어 인천 - 威海, 인천 - 천진에 이어 세번째 대중국 해상통로가 되고 있다. 『중앙일보』, 1994. 2. 17.

第 VI 章 結 論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교역, 투자 등의 확대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2년 중국과 수교하였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경협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정치·안보관계가 점진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한·중경협 확대로 중국의 대북한 정치·안보관계 강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 국제경쟁력이 약한 노동집약형산업의 中國 移轉 투자와 전자, 전기 부문의 고급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교역, 투자 등을 통한 종래의 量的 팽창에서 質的 개선을 위한 산업협력 관계형성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산업체제의 재정비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형성이 불가피하나,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관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적 발전단계에 있어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산업분업체제의 호혜적이고도 특화된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전략이 성공치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기술 및 산업구조상 일본에의 종속이 가속화되게 되고 중국에게 노동집약적 산업을 빼앗길 위험성이 많

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한국 총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일본,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한 한·중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산업협력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포함하는 개방된 동북아경제협력권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에 있어서의 지역 편중 현상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 확보를 대북 경험의 전제로 삼고 있어 기업의 본격적인 대북 진출은 물론, 중국과의 합작에 의한 대북 진출 및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이후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계적인 대북 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연변지역 조선인 기업집단을 중심창구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독 및 한중합작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자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나 대외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지불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위탁가공 투자를 모색하고 나아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합작하여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북

한경제체제의 개방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의 대중 경협관계는 3大 特化戰略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략이 서로 연관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山東省을 중심으로한 수출주도형 경협, 중국시장의 內需지향을 겨냥한 경협, 중형항공기 사업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이전을 중심으로한 경협을 연계하는 가운데 흑룡강성, 길림성과 기타지역에 대한 농 수산물, 천연자원개발 투자 경협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도 대중 경협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1990년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유지를 한반도 정책중에서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경협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전제로한 대한민국 안보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 경협 확대만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안보 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대중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중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친북한 성향의 중국내 군부인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중·북한간에 존속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상호 불가침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한·중간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역, 투자 및 과학기술 이전 등에서

상호 보완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한·중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중간경협확대는 양국간 상호 의존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hip)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협력 관계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및 논문

- 金時中. “韓·中經濟關係의 現況과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 金時中 編.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6.
- 金學洙.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3.
- 吳勇錫.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12.
- 任千錫 編.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6.
- 경제기획원. 「韓·中 經濟協力 便覽」. 1994. 3.
- 김국후. “북한 중국 국경무역의 현황과 의미.” 「통일한국」. 1994. 5.
- 金成勳. “동북아 경제진출의 시금석: 삼강평원과 두만강삼각주 개발.” 「전망」. 1994. 7.
- 吳勇錫. “한국경제 선진화위해 동북아 경제블럭 구축 필요.” 「展望」. 1994. 7.
- 毛鋼, 錢芬琴 編. 「社會主義市場經濟學」. 上海: 中國物價出版社, 1994. 3.
- 孫漢超. 「中·韓經貿現象及存在的問題」. 中國, 1993. 10.

余建林 外 編. 「重返 GATT: 關貿總協定與中國經濟」. 上海: 人民出版社, 1994. 3.

Manning, Robert A. "Cliton and China: Beyond Human Rights." *Orbis*, Vol. 38, No. 2, Spring 1994.

Wang Xi. "China in the Year 2000." in *Asia in the 21st Century, 1993: Korea-China Relations*. 서울: 건국대학교, 1993.

2. 기 타

「주요국제정세일보」.

「매일경제신문」

「세계일보」

「연합통신」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對外經濟貿易年鑑」. 中國, 各年號

China Economic New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Korea Herald.

South China Morning Post.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的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の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の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研究報告書 94-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0월 일

發行日 1994년 10월 일
